

도민체전 눈앞... 고창, 손님맞이 분주

대형 홍보탑 세우는 등
곳곳 환영분위기 조성
이번주 7종목 사전경기
12일부터 33종목 진행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체전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고창군이 손님맞이에 분주하다.

대형 홍보탑이 세워지고, 거리 곳곳에 환영 가로등을 내걸어 환영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주민들도 덩달아 들뜬 이고 있다.

1일 고창군에 따르면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체전'이 지난주말(8월30~31일) 방장산 활공장에서 패러글라이딩 종목이 성공적으로 치러지면서 본격적인 대회 시작을 알렸다.

이번주에는 5일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태권도가, 6일에는 야구와 사이클이, 7일에는 롤러 경기가 진행된다. 이어 도민체전이 본격 개막하는 12일부터는 공설운동장과 군립체육관을 비롯해 각 읍·면의 경기장에서 33개 종목이 진행된다.

대회기간 중 고창을 찾은 선수단과 임원진, 응원단만 2만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이들은 해당 경기 종료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체전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고창군이 손님맞이에 분주하다. 사진은 고창군 관내에 세워진 전북도민체전 대형 홍보탑. (사진=고창군청 제공)

뒤에도 고창읍성 답성놀이, 운곡습지 트레킹 등 다양한 문화관광 체험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창군은 고창경찰서, 고창소방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재미있는 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종 점검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무더위와 폭우를 피할 수 있는 실내 공간 확보와 대형천막 설치 등으로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에서 잊지 못할 추억과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대회의 완벽한 운영은 물론, 손님맞이 전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대표팀은 미국에서 오는 7일 미국, 10일 멕시코와 평가전을 치른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美 원정길 올라

7일 미국 · 10일 멕시코와 평가전

축구 국가대표팀이 1일 미국 원정길에 올랐다.

국제축구연맹(FIFA) 2026 북중미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된 뒤 첫 평가전을 치르는 홍명보호는 오는 7일 오전 6시(한국 시간) 미국 뉴저지주 해리슨의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 스타디움에서 미국과 첫 번째 평가전을 치른다.

이어 10일 오전 10시 테네시주 내슈

빌의 지오디스파크에서 멕시코와 두 번째 대결을 벌인다.

이동경(김천), 김진규, 박진섭, 송범근(이상 전북), 서민우(강원), 김문환, 이명재(이상 대전), 변준수(광주), 조원우(울산) 등 국내파 9명은 이날 코치진과 함께 미국으로 이동한다.

손흥민(토스엔젤레스FC)과 이강인(파리생제르맹),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등 나머지 해외파 17명은 현지에서 합류한다. /뉴시스

세계랭킹 1위 서승재-김원조 배드민턴 세계선수권 제패

남자복식 결승서 중국 2-0 완파

배드민턴 남자복식 세계랭킹 1위 서승재-김원조(이상 삼성생명) 조가 세계개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를 제패했다.

서승재-김원조는 1일(한국 시간) 프랑스 파리의 아디다스 아레나에서 열린 2025 세계개인배드민턴선수권 남자복식 결승에서 중국의 천보양·류이(11위)를 2-0(21-17 21-12)으로 완파했다.

서승재-김원조는 이번 대회에서 싱가포르(2-0), 인도네시아(2-1), 말레이시아(2-1), 덴마크(2-0)에 이어 중국 조까지 격파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1게임에서 13-17로 끌려가던 서승재-김원조는 무서운 뒷심을 발휘해 전세를 뒤집었다. 내리 8점을 올리는 저력을 과시하며 1게임을 따냈다.

2게임에서는 단 한 차례도 리드를 빼앗기지 않았고, 시종일관 공수에서 상대를 압도하며 손쉽게 승리를 거뒀다. /뉴시스

2023년 세계선수권대회 남자복식에서 강민혁(국군체육부대)과 우승을 함께했던 서승재는 2연패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1월 서승재와 김원조는 7년 만에 재결합했다. 다시 복식 조로 호흡을 맞춘 이들은 빼어난 기량을 자랑하며 올해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 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 슈퍼 750 일본오픈, 슈퍼 300 독일오픈에서 우승했다.

한국 남자 복식 조가 최고 권위의 배드민턴 대회인 전영오픈에서 정상에 오른 건 2012년 이용대-정재성 조 이후 13년 만이다.

국제 대회에서 뚜렷한 성과를 낸 서승재-김원조는 지난 7월 세계랭킹 1위에 오르는 영예도 안았다.

2016년 이용대-유연성 조 이후 9년 만에 한국 배드민턴이 남자복식에서 세계랭킹 1위에 등극한 것이다. /뉴시스

한 달 남긴 올시즌 프로야구... LG, 우승까지 '매직넘버 15'

올 시즌 프로야구도 어느새 끝을 바라보고 있다.

2025년 프로야구 정규시즌이 잔여 경기 일정만을 남기고 있는 가운데 선두 LG 트윈스는 우승 확정을 향해 마지막 스프린트를 준비하고 있다.

LG는 2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롯데 자이언츠와 2025 신한 솔뱅크 KBO 리그 경기를 치른다.

비록 전날(8월 31일) 최하위 키움 히어로즈에 발목 잡히며 연속 위닝시리즈 기록을 연장하지 못했으나, 우승 확정을 노리는 LG의 상승세는 심상치 않다.

LG는 7월 8일 잠실 키움전을 시작으로 지난달 28일 창원 NC 다이노스전까지 12회 연속 위닝시리즈를 작성, KBO리그 단일 시즌 최다 연속 위닝시리즈 신기록을 세웠다.

LG, 8월 구단 18승 기록 9월 상승세 '관심사'
2위' 한화, 시즌 막판까지 선두 추격 나서

아울러 8월 치른 25경기에서 18승 1무 6패를 거두며 LG는 구단 월간 최다승(1994년 5월 · 17승) 기록까지 경신했다.

지난달 무섭게 승수를 쌓은 LG의 우승 확정까지 매직넘버는 15. LG는 2위 한화 이글스의 추격을 따돌리고 한국시리즈 직행에 도전한다.

이번 주 4경기를 치르는 LG의 첫 상대는 롯데다. LG는 올해 롯데를 상대로 8승 2무 4패를 기록하며 강한 면모를 보여왔다.

LG는 롯데에 이어 KT 위즈(4일), 두산 베어스(6일), SSG 랜더스(7일)와 차례로 맞대결을 펼친다.

잠실 3경기를 포함해 4경기 모두 수도권에서 진행되는 만큼 체력 관리에도 유리한 상황이다.

한화도 시즌 막판까지 선두 추격을 노린다.

비록 직전 삼성 라이온즈와의 3연전에서 스윙패를 당하며 다소 주춤한 모양새지만, 아직 20차례 잔여 경기를 남긴 만큼 포기하긴 이르다.

한화는 이번 주 KIA 타이거즈(2일), NC(3일), 삼성(6·7일)과 만난다.

KIA(8승 4패)를 제외하곤 올 시즌 상대전적에서 크게 앞서지 못하지만

한화는 막강 에이스를 내세워 승수 쌓기에 도전한다.

개막 16연승을 달리는 중인 한화의 에이스 코디 폰세는 한화 구단 역사상 최초 단일 시즌 20승 도전을 이어간다.

'무패 다승왕'을 노리는 폰세는 한화 역사를 넘어 KBO리그 역사까지 노리고 있다.

한화로선 앞선 3연전 맞대결 스윙을 비롯해 최근 10경기 8승 2패를 달성하며 순위를 크게 끌어올린 삼성과의 원정 2연전이 고비가 될 전망이다.

다만 폰세(1승 · 평균자책점 0.00)와 문동주(2승 · 평균자책점 2.31)가 올 시즌 삼성을 상대로 강한 면모를 보여왔던 만큼 승산은 충분히 있다. /뉴시스

석정온천 휴스파 웰파크호텔에서 심포를 찍다

고창군 석정온천 단지

☎ 호텔 063.560.3333 | 휴스파 063.560.7510

